



사순 제4주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 가톨릭마산



# 빛이신 예수님께서로 나아갑시다!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셨다.”(요한 3,16)

평화를 빕니다.

복음이, 곧 예수님께서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핵심 가르침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 핵심 가르침은 ‘지금 여기에서 내가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그리스도(Alter Christus)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와 영원히 사는 길’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믿는 바가 삶이 되게 하는 것!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

참으로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이 가르침이 바로 ‘예수님의 육화와 수난’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핵심 가르침입니다.

입에도 예수, 귀에도 예수, 눈에도 예수, 손에도 예수, 어디에서나 늘 예수께 사로잡혀 있었던 아씨의 성 프란치스코처럼(1첼라 115 참조), 단순하게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이고, 그것이 바로 아파 신음하고 있는 공동의 집인 지구가 우리에게 전하는 외침이며,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전하는 외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서 니코데모와의 대화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요한 3,5)

사순 시기는 ‘돌아가는 시기’입니다.

믿음으로 돌아가고, 희망으로 돌아가고, 사랑으로 돌아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순 시기는 ‘거룩한 시기’이며, ‘은혜로운 시기’이고, ‘구원의 시기’입니다.

오늘 제1독서는 믿음으로부터 멀어진 결과인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런 이스라엘이 하느님의 자비로 다시 살게 되는 모습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2역대 36,14-16,19-23 참조)

그리고 오늘 제2독서에서 사도 바오로는 에페소 교회에 전하는 편지를 통해 자비가 풍성한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잘못을 저질러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나의 생각과 말과 행위가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십자나무에 높이 달린 주 예수를 정성된 마음으로 바라봅시다!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요한 3,16)



이병우 루카 신부 | 공소사목 전담(배둔공소)



제 1 독 서 2역대 36,14-16,19-23

화 답 송 © 내가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

제 2 독 서 에페 2,4-10

복 음 요한 3,14-21

주일 진레

# 겸손: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박재찬 안셀모 신부/ 분도 명상의 집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요한 3,30) 세례자 요한의 이 고백은 사실 제가 20년 전 종신 서원 때 택한 성구입니다. 작아지는 삶, 겸손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살아왔지만 때로는 오만과 불순종, 교만과 아집, 때로는 겸손을 가장한 위선에 얼룩졌던 지난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요즘 제가 원하는 삶은 하느님 안에서 숨어 사는 삶, 조용히 수도원에 머물며 책을 읽고, 번역도 하고, 글도 쓰고, 기도하고, 농장에서 땀도 흘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리저리 불려 다니며 특강을 하고 피정 지도를 해야 합니다. 참으로 많은 분들이 면담과 고해성사를 위해 분도 명상의 집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분원 책임자로서 형제들을 위해 봉사하고 피정의 집을 운영해야 합니다. 계속되는 공사와 수리로 이제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금 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지만, 사람들 앞에 서는 일은 언제나 저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요? 좀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라고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제 안에서, “가만히 좀 있거라! 내가 하는 것이니 너는 그저 ‘예’하고 따라오기만 하거라” 하십니다. 하느님 마음대로 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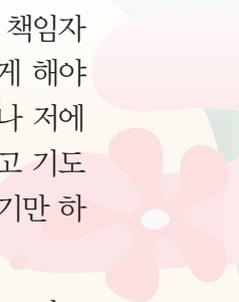
저는 겸손은 하느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맡기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겸손은 세상의 겸양지덕과는 다릅니다. 단순히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겸손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주님께 봉헌하는 것입니다. 열 달란트를 받고서도 하나만 사용하며 겸손한 척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불순종입니다. 겸손은 진정 하느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세에서 시작하여, 하느님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순종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하느님을 위해서는 똥(?)도 풀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바로 겸손이요 순종입니다. 겸손한 이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하느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넣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사랑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는 세례자 요한의 말처럼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 작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더 커지게 하고 자신을 낮추어야 하는데 이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이 보기에 미숙하고 부족한 사람들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며 그들에게 겸손을 실천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나를 모독하거나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과연 겸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기도와 수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참된 영적 성장을 위해 자신을 끊임없이 버리고 비우는 삶입니다. 때때로 믿음이 약한 우리는 이것을 버리면, 저것을 포기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꼭 붙들고 내려놓고 낮아지기를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마주 오는 사람을 통한, 시련의 시기를 통한 십자가를 거부하고 도피하려 들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고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생각이 자신을 사로잡을 때 침묵 가운데 기도하며, 세례자 요한처럼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라는 말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사도 바오로처럼 약함을 통해 큰일을 하시는 주님께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주님의 큰 사랑과 섭리를 신뢰할 때 겸손한 마음이 생겨날 수 있을 것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비굴하게 업신여기라는 말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님께서 있는 그대로 받아 주시고 계신 것처럼, 다른 이들도 그렇게 받아 주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과 품위 있는 태도로 자신과 이웃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때 교만의 꽃이 떨어지고, 겸손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겸손하게 조용히 성당에 다니고 싶은데, 자꾸 사목 위원으로 봉사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당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그 자매는 늘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다른 이들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합니다. 불평에 동참하지니 죄를 짓는 것 같고, ‘그러지 말라’고 하자니 그 자매가 저에 대해 뒷담화할까 두려워요.”





# 젊은 도시 창원과 어깨를 나란히 한 반송성당

유희선 가타리나

## 아파트 숲속의 신자들

‘성전에 앉아 제대 쪽을 바라볼 때마다 늘 시선을 뺏기는 곳은 가로, 세로 1cm의 작은 타일들이다. 둥근 천창이 있는 높고 넓은 제대 전면과 내부 골격의 돌출된 기둥까지 마감재로써 그 작은 타일이 선택된 것이 놀랍다. 화려한 장식은 아니지만, 은은함이 감돌고 헤아릴 수 없는 숫자 때문인지 막연한 신비감이 들기도 한다. 이리저리 고개를 돌려가며 혹시 떨어져 나간 곳은 없는지 살펴보기

도 한다. 만약에 저 타일이 떨어져 구멍이 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저 높은 곳을 매번 수리할 것인지 걱정 아닌 걱정을 사서 하기도 한다.

타일을 붙인 이들의 노고를 생각하다가, 그 타일 하나하나가 반송의 신자들 같기도 하다가 어찌면 아파트 숲의 유리창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반송성당은 그렇게 주변이 온통 고층 아파트로 둘러싸인 곳이며 일부는 투기과열지구에 속하는 아파트들도 있다. 중심상업지구와 인접하고 있어서 활기가 넘치는 지역이지만 유동 인구가 그만큼 많은 곳이기도 하다. 불과 십오륙 년 전, 재개발 붐이 일어나기 이전의 모습을 지금은 상상하기 힘들다.

1980년 인구 12만으로 탄생한 젊은 창원시의 초고속 발전과 팽창에 따라 반송본당은 신흥산업도시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는 가톨릭교회의 한 전형이 되었다. 그 바탕에는 바로 젊은 노동자들, 젊은 가정이었다.

## 저력 있는 교우들

반송성당이 태동하던 사십여 년 전, 옛 본당 주변의 반송 아파트 1단지 안에는 당시 정부로부터 주택과 직장을 약속받고 이주해 온 서울시 철거민들이 약 10개 동 395세대가 이미 입주해 있었으며 그 나머지는 새로 들어서는 공단에 근무하는 일반 이주민이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본당의 뿌리는 이주노동자들의 터전 한복판에 세워진 것이다. 비록 협소하고 불편했던 가난한 교회였지만 가난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며 크나큰 은총을 실감할 수 있었던 풍요한 시기였다.

그 당시 새로운 일터를 찾아 고향을 등진 수많은 이주민은 낯선 도시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었고, 종교 생활은 삶에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시대와 지역적 상황을 직시한 교회 역시 그 역할에 충실했었다. 초기 신부님들은 노동자들과 젊은이들에 관한 관심이 각별했었다. 초대 김용호 안셀모 신부님, 2대 이은진 도미니코 신부님, 3대 배진구 베드로 신부님에 이르는 시기에는 공단 내 직장교우회원들의 모임인 ‘나눔회’를 본당에 두고 활동을 펼쳤다. 외로운 처지의 교우들은 젊은 열기의 열정을 교회에 와서 쏟고 나누며 함께 성장하고 기쁨과 보람을 느꼈다. 반송의 큰 자랑거리인 단합력은 그 시절 같은 길을 걸어난 이들의 공감력과 끈끈함이 몸속에 내재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체질화된 행동력으로 반송본당은 그야말로 폭풍 성장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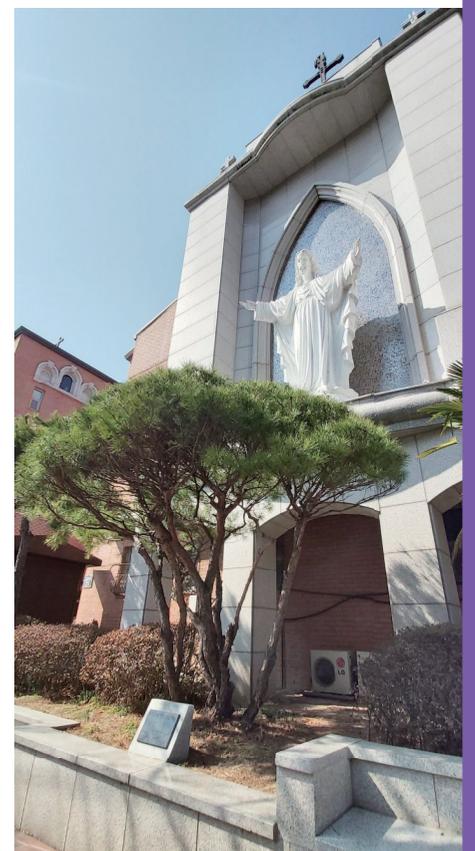
겨자씨 한 알의 비유처럼 큰 나무가 되어 존재감을 드러냈고, 울울창창 가지를 뻗어갔다. 1989년에는 사파동성당, 1991년에는 명서동성당, 2015년에는 사림동성당 분가가 이루어졌다. 2005년에는 지금 위치에 있는 아름다운 성전을 봉헌하게 되었다. 새 성전과 함께 <반송성당25주년사>를 출간하기도 했다. 당시에 세대마다 나누어주었던 책을 이번 기회에 다시 읽어보면서, 그야말로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이 그 안에 있었음을 새삼 발견하게 된다. 찬란한 반송본당의 빅뱅 시대였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 황무지에서 옥토로, 그라츠교구와의 인연을 생각하며

하 마리아님이 지난해에 선종하셨다는 소식을 접했다. 본당 25년사에는 본당 설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하 마리아님과 그라츠교구에 대한 기록이 있다. 하 마리아님은 옛 성전 부지를 구입해야 한다는 절실함을 주변에 전했으며, 실제로 며칠 내에 기금이 걷히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다. 그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가톨릭 유년단이 동방박사 선물을 나눠줄 그해 주요 사업에 마산교구가 선정된 것도 자매님의 간곡한 기도와 양국을 오고 가는 뜨거운 열정으로 맺어진 일이었다. 본당 설립에 관한 이야기는 세계 선교를 소명으로 삼고 지내던 하 마리아님의 이모 아델하이트게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분의 기도로 하 마리아 본인도 선교를 위한 소명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기 때문이다. 아델하이트는 평생 가난했지만, 당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돌아가시기 전에 옛 반송본당(제대와 감실)을 위해 내놓기도 했다. 그들의 헌신은 이제 완성된 것처럼 보인다. 반송본당은 지속해서 성장하였고, 마산교구의 든든한 반석이 되었다. 역사를 되짚어보며 주님의 '접리'를 체험한다는 것은, 본당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기도 한다.

작년 본당의 날 미사 중에는 그간 39년의 세례식에 대한 동영상을 보았다. 감격스러운 장면 속의 형제자매들은 모두 주님의 포도나무 가지에 단단히 붙들려 살아가고 있을까? 혹시 파편처럼 떨어져 나가지는 않았을까. 다시금 성전 내 미미한 타일 조각들에 한없이 마음이 쏠리는 이유를 생각하게 된다. 그것이 도시의 급격한 팽창과 부의 쏠림 현상에 말미암은 것이라면, 우리 본당의 역할은 더욱 분명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송성당은 시장과 길거리를 향해 품을 내놓은 듯 디근자 형태이다. 마치 예수님이 양팔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다. 안으로 따뜻하게 품고, 밖으로는 베품을 실천하는 통로처럼 보인다. 거침없이 도약했던 저력 있는 반송 교우들은 가난을 기억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 아담하고 친근한 반송 나무의 겸허함처럼 고요한 열정으로, 사시사철 푸르다. 그 그들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수십, 수백 걸음을 덮을 만큼 품을 넓힐 것이다.





### 교구장 동정

#### 주교영성모임

일시: 3월 15일(월)~16일(화)  
장소: 목포 레지오마리아기념관

#### 故김차규 신부 1주기 추모미사

일시: 3월 19일(금) 11:00  
장소: 고성 이화공원묘원 성직자 묘역

#### 본당사목방문

일시: 3월 16일(화)  
본당: 고성/ 장평  
일시: 3월 18일(목)  
본당: 옥포/ 장승포

#### 지구장 본당방문

일시: 3월 17일(수)  
본당: 팔용동/ 중동/ 명서동/ 반송

### 교구/본당

#### 청년간부 및 단체장 연수 일정 변경

일시: 3월 14일(주일) 10:00~15:3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참가비: 1만 원

#### 청년 신앙강좌

일시: 3월 28일(주일) 13:00~15:30  
장소: 교구청 1층 대강당  
강사: 이정림 신부(교구 청소년국장)

주제: “신경: 계시와 응답”  
대상: 교구 내 청년  
준비물: 마스크, 텀블러, 필기도구  
신청: 3월 21일(주일)까지  
문의: 청년부 055·249·7065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청년부' 검색

#### 교구 성경부 말씀 봉사자 모집

지역: 마산, 창원, 진주, 거제, 통영  
신청: 3월 31일(수)까지  
문의: 성경부 055·249·7026, 010·7479·7026

### 위원회/기관/단체

#### 군중후원회 감사미사

일시: 3월 17일(수) 10:00  
장소: 호계성당  
문의: 교구 군중후원회 055·249·7113

#### 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일시: 3월 17일(수) 19:00  
장소: 교구청  
문의: 교구 민화위 055·261·8201

#### 마리아사제운동 평신도 체나콜로 3월 기도 모임

일시: 3월 22일(월) 13:00~15:00  
장소: 교구청 1층 대강당  
준비물: 메세지 책, 미사 준비  
문의: 회장 010·9399·5454

### 기타

#### 무료법률상담

일시: 3월 26일(금) 14:00(매월 넷째 주 금)  
내용: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등

방법: 대면 및 전화상담  
문의: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055·640·7724

#### 수도전통에 따른 렉시오 디비나 입문과정

일시: 4월 15일(목)~18일(주일)  
장소: 양평까리파스 피정의집/ 인원: 32명(1인실)  
피정비: 35만 원/ 지도: 허성준 신부(외)  
문의: 한릿다 봉사자 010·8599·3127

#### 마산가르멜산의 성모재속회원 모집

일시: 5월 17일(월) 10:00  
(셋째 주일 지난 월요일)  
장소: 진동 가르멜 수도원 피정의 집  
대상: 만55세 이하 남녀 가톨릭 신자  
문의: 010·8525·1150

#### 나자렛예수수녀회 피정 및 교육

대상: 개인 또는 20명 이내 단체(코로나 종식 전 5명 이내)  
피정: 성경(말씀)피정, 전례(기도)피정  
교육: 실천 교리 교육, 첫영성체 교리 교육 (인성, 신앙)  
장소: 나자렛예수수녀회 본원 피정의 집  
문의: 010·2133·4903

####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주(수) 14:00~21:00  
장소: 마음의집(창원시 도계동)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운철(요한 보스코) 신부  
정신보건전문상담사자격 보유  
(한국상담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  
문의: 010·3551·2038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3월 20일(토) 14:00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 vocationoh@daum.net	보건 및 복지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

**가톨릭 트러블**  
올레길 425Km 24박 25일  
제주교구 성지 7곳 순례 일정  
289만원(2021년 4월 6일/ 매일 출발)  
070-4086-0207 www.catravel.co.kr

---

**신세계 피부비뇨기과**  
피부질환 / 비뇨기질환 · 수술 / 전립선암 검진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층  
(자유시장 사거리)

원장 김인구 베네딕토  
055.757.9888~9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포도잼, 무화과잼, 꿀잼 410g  
판매단위 - 날병 1박스 20개  
2중 세트 10개 1박스  
3중 세트 6개 1박스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문의 및 주문 : 010-2652-0706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롱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가톨릭마산**  
교구보 매너 광고  
신청받습니다

교구보 광고 후원은  
복음전파를 위한  
봉헌입니다.

■문의: 홍보국 055)249-7072



기억할 선종 사제  
김차규(필립보) 신부  
2020년 3월 19일

**故 김차규 필립보 신부 1주기 추모미사**

일시: 3월 19일(금) 11:00  
장소: 고성 이화공원묘원 성직자 묘역  
주례: 총대리 최봉원(야고보) 신부  
강론: 황봉철(베드로) 신부  
참석범위: 교구청 사제단, 유가족  
※ 코로나19 관계로 참석범위를 제한합니다.  
신부님을 기억하며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에서는 신부님을 위해 추모미사 1대를 봉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만합창단원 모집('세상에 외치다')**

불만합창단은 노래를 잘하기 위한 합창단이 아닌, 장애인들이 세상과 소통하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래를 개사하여 부르는 합창단입니다.

대상: 창원시 거주 장애인 및 시민  
문의: 마산장애인복지관  
손경희 055·247·5194



**제15회 마산교구 가톨릭문학 신인상공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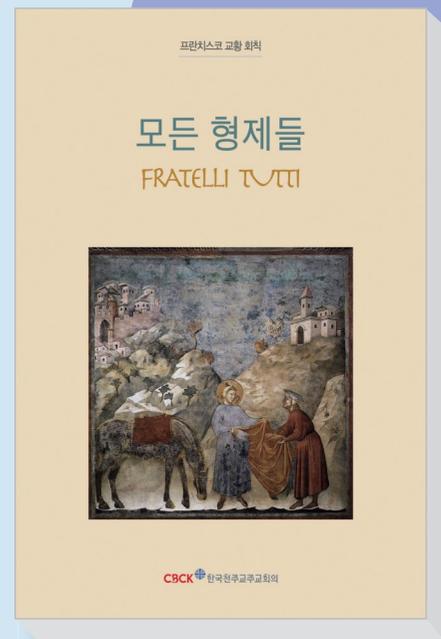
- 자격: 등단하지 않은 교구 천주교 신자
- 분야: 시 5편 이상/수필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2편/소설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1편/동화 30매 내외 1편
- 접수처: 천주교 마산교구 홍보국(51727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 마감: 9월 30일(목) 도착분
- 당선자: 각 부문 교구장 상패와 상금 50만 원(소설 70만 원)
- 기타: 타지에 발표되지 않은 순수 문학작품이어야 함,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유의사항: 작품 말미에 E-mail,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세례명, 소속 본당을 명기할 것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겹봉투에는 '가톨릭문학 신인상 응모'라고 명기할 것  
워드프로세서로 원고를 작성할 때에는 마지막 장에 원고지 매수를 기록할 것

**모든 형제들  
(Fratelli Tutti)**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회칙**

『모든 형제들』(Fratelli Tutti)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세 번째 회칙으로 인간의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를 다루는 사회 회칙입니다.

교황께서는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류의 거짓 안전뿐 아니라 초(超)연결되어 있는 인류 공동체의 중요성이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계화와 진보를 향하여 공동 항로 없이 내달리는 세상 안에서, 서로를 가르는 장벽을 뛰어넘어, 모든 이가 동등한 권리와 의무, 존엄성을 지닌 형제자매로서, “모든 얼굴과 모든 손과 모든 목소리를 아우르는 인류 가족”을 이루도록 함께 꿈꾸자고 초대하십니다.



- 저자: 프란치스코
- 발행일: 2021년 2월 8일
- 분류: 회칙



# 하느님의 구원계획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김영선 루시아 수녀 / 광주가톨릭대학교

바벨탑 이야기(창세 11,1-9)는 어떻게 해서 인류가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는 하느님의 원래의 구원 계획과는 역행하는 방향으로 인류 역사가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우회로를 개척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느님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 하느님의 새로운 구원 계획의 대상이 될 한 민족을 무대에 세우기 위한 배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런 연유로 바벨탑 이야기 다음에 셈의 족보(창세 11,10-32)가 소개됩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셈의 후손이기 때문이고, 이 족보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기 위한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족보의 마지막 부분에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테라의 족보가 자세하게 소개됩니다. 테라의 족보(창세 11,27-32)는 12장에서 시작될 아브라함 이야기의 도입문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에 따르면 노아는 아담의 10대손이고, 노아의 10대손이 아브라함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소개되는 10세대 족보는 종종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하느님께서 이제 곧 인류의 구원을 위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느님의 새로운 계획은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될까요?

이번에 우리가 순례를 갈 곳은 테라의 고향인 칼데아의 우르라는 도시입니다. 테라의 가족들은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테라가 70세 때 아브람과 나호르와 하란이 태어났고(11,26), 하란은 그곳에서 자기 아버지 테라보다 먼저 죽었습니다(11,28). 곧 이 가정도 불행과 무관한 그런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하란에게는 밀카와 이스카, 롯이라는 자녀가 있었고, 밀카는 삼촌인 나호르와 결혼을 하였고, 롯은 다른 삼촌인 아브람이 돌보았던 것 같습니다. 하란이 죽고 난 후 테라는 가족들과 함께 칼데아의 우르를 떠나 현재의 터키 지역에 해당되는 하란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칼데아인이라던 기원전 6~7세기의 신바빌로니아 제국 당시의 바빌로니아인들을 지칭하던 말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기록된 것은 아브람 당대(기원전 22세기 경)보다 훨씬 더 후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족보는 바빌론 유배지의 백성들에게 큰 빛을 던져 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아브라함의 삶에 비추어 성찰하였고, 아브라함의 가족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과정을 그들이 유배지를 떠나 본국으로 귀환하는 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유배에서 돌아오는 그들에게 다시 주시리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후 24,2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이며 나호르의 아버지인 테라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강 건너편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테라와 아브라함, 나호르, 롯은 모두 우상 숭배자들이였습니다. 우르라는 도시의 주신主神은 달의 신인 신Sin이었으며, 테라의 이름은 달을 의미하고, 하란의 딸 밀카의 이름은 신Sin의 딸인 이쉬타르 여신의 별칭입니다. 게다가 사라는 석녀였습니다. 그렇다면 우상숭배자이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내를 가진 아브람이 바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되는 지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 초기부터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시작되고 성취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느님께서 가능성보다는 불가능성이 더 짙은 곳,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구원계획을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느님의 은총과 힘, 능력을 우리 자신의 한계 속에 가두려고 합니다. 하느님도 못 하실 것이라고 스스로 단정 짓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바로 그 자리를 찾아 오시는 분이십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통하여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순례지로 옮겨가기 전에 잠깐 시간을 내어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었던 자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시작되었나요?